

# 암스키코리아 AURORA 800 시리즈 안정된 성능의 UV-CTP 시리즈 일반 PS판재 사용으로 수익에 기여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URORA 800 시리즈

암스키코리아(대표 김윤철)는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판재를 사용하여, 고객의 편의성 증진과 이익실현을 극대화하는 UV-CTP AURORA 800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다.

오로라 800시리즈는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32~64 채널의 830nm 서멀레이저다이오드인 800T 모델은 강한 내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정밀한 인쇄망점들을 서멀 판재에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암실이 필요없어 작업의 능률도 오를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긴 수명의 레이저를 채택하여 소비자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장드럼을 채택하여 판을 출력할 때 높은 정확성을 발휘하며 강력한 클램프를 채택하여 판의 연속된 출력에도 틀어짐없는 출력을 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인쇄물의 출력을 돕는다. 시간당 최대 31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작업크기는 1030 × 800mm, 175선 까지의 고선수 작업이 가능하다. 해상도는 2400dpi까지 지원한다.

AURORA 800시리즈는 레이저와 판재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오토포커싱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판재 표면에 일정치 못한 부분이나 출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발생을 최소화

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기술인 스크린 콘트롤을 통해 정교하고도 유일한 망점 보상 기술을 사용하여 1~99%까지 그레이스케일을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늘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철저하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 것도 눈길을 끈다. 초고속 USB 2.0을 채택하였으며 일반 프린터와 같이 편리하게 설치와 작동이 되도록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AURORA 800U Specifications(UV CTP)는 완전자동 오토로더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카세트로 200장까지 적재가 가능해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있다. 자동으로 간지 제거기능을 갖고 있는 AURORA 800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저작권국과 세계 저작권 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국 특허 평가대회에서 오토포커스 부문과 파이버각도 오토조절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시간당 판 출력속도는 최대 34판에 이르며 최대 1130 × 900mm의 작업 사이즈와 최대 2400dpi의 해상도를 실현한다. Ⓞ